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중앙경찰학교 유치 박차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예결위원 ·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면담

최경식 남원시장이 국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과 영호남 지역구 의원 들과의 면담을 통해 2025년 국가 예산 확보 및 제2중앙경찰학교(이하 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 지 국회를 방문해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와 윤준병 예결위원, 남원 출신 강경숙 의원과 정대영 예결위 전문위 원을 차례로 만나 예산 미반영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은 △첨단 드 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총사업비 190억원) △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장비비 지원 (40억원) △산내 부운 하수관로 정비 (52.9억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120 억원) 등이다.

이어 최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 내대표와 김형동 의원과의 면담을 통 해 학교 최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초 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 이 자리 에서 최 시장은 학교의 유치가 지역경 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영호 남?제주 지역의 순경 공채 비율이 서 울을 제외한 충청 이북 지역보다 높아 교육생들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편익 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최경식 남원시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에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경북 안동시 예천군 지역구 김형동 의원은 남원시 의 지리적 강점과 국유지 활용 등 사 업성 우위에 공감하고, 마지막까지 남 원시가 적극적인 대응 추진을 당부하

답변에서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 발 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 황으로, 건의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에 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 유치 또한 남원시의 중요한 발전

임실군표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개막

과제로 이를 통해 남원시가 경찰 교육 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 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 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인에 대한 국 회 예산심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남원시 는 전북도 및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로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4년 제2회 순창교육행정협의회

순창군이 순창교육지원청과 함께 2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순창교육행정

제2회 순창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교육부 공모 선정 '창의예술 미래공간' 업무 협약도 진행 순창교육지원청 직원 29명,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순창군이 순창교육지원청과 함께 20 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순 창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이번 혐의회에서는 2025년도 교육경 비 예산안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양 기관의 협업으로 교육부 공 모사업에 선정된 '창의예술 미래공간' 업무 실시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군과 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교육 행정협의회와 농촌유학 합동 설명회 를 번갈아 개최하며 교육 분야를 비롯 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체계를 구축

뿐만 아니라, 이날 협의회에 맞춰 순

창교육청 직원 29명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남상길 교육장은 "순창 교육 발전을 위해 순창군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을 해주시는 최영일 군수님께 감시드 린다["]면서, "특히 오늘 논의된 다양한 교육협력 안건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순창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최영일 군수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시는 남상길 교육장님과 교 육청 관계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 다"면서"앞으로도 교육협력체계를 강 화하고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 순창 교 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 /순창=이양원 기자



소방안전문화캠페인 안전하기 좋은 날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상인과 시민 들이 자발적인 자율적인 안전 관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 방차 길터주기 및 소방안전문 -화캠페인,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 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참여 △1점포 1소화기, 소화기 및 단 독경보형 감지기 사용법 교육 △자율점검표 배부 △대상별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점검 및 자율개선 추진 △최근 발생 한 대형화재 사례 전파 및 안전 관리자 업무수행 당부 △화재 예방 홍보물 배부 등이다.

또한 공설시장 등 상습정체구 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출동 훈련'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긴 급차량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 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소방차 의 재난현장 접근성 확보 및 불 조심 경각심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여성친화도시' 선정

남원시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 다고 20일 밝혔다.

남원시는 2013년과 2018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 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 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 했으며,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사업 목표를 여 성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남 원으로 정하고 여성친화도시 민·관 거버넌스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 과 편의 증진,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19일 (주)대한에스엠

이번 기탁식은 순창군청 군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봉화 대표이사와 김지애 부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며 고향사랑기부를 실

설봉환 대표이사의 (주)대한에스엠 피는 전기공사와 태양광 발전 설치 공 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태 양광 발전 시설의 유지・사후관리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등의 서비스

김지애 부사장의 (주)이삭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설 치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설봉환 대표이사와 김지애 부사장은



사랑상품권 300만 원을 순창군가족센 터에 다시 기탁해 지역사회를 위한 2 차 나눔을 실천했다. 설봉환 대표이사와 김지애 부사장은

'순창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기부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 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을 사랑하 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이들의 나눔이 순창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중요 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대한에스엠피 설봉환 대표이사 : 이삭에너지 김지애 부사장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각각 500만원 기탁

피의 설봉환 대표이사와 (주)이삭에너 지의 김지애 부사장이 고향사랑기부 금으로 각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천했다.

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운영

남원, 알코올 중독 예방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 장 박지영)에서는 전주 보호관 착소 난워지수와 여계 지연사 회 알코올 중독 및 의존증 고위 험군 대상 '지금부터 시작이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위험군 자조 모임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 60여 명을 대상 으로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한 자가 인식,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 척도 검사,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대일 심 층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을 제 공하여,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 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행동 변 화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알코 올 중독 예방에 대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지영 센터장은 "이번 알코 올 중독 고위험군 프로그램 운 영을 통하여 남원 시민 모두가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중독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 고,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임실군표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체

22~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서

사전 예약 대상 체험행사 개최

험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임 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개 최된다.

임실군과 (농)임실앤양념(주), 임실 엔양념마을사업단이 주최 • 주관하는 김장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체험행사는 지난 한 달여간 진행 된 사전 예약 접수 기간 중 직접 와서 김장을 담가 가길 희망하는 사전예약 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2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 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김장페스티벌 체험행사는 총 700여 명이 참여한다.

개막행사는 십 민 군수와 장종민 군 의회 의장 및 의원, 박정규 도의원, 임 실경찰서장과 임실교육장, 농협군지부 장 및 지역농협장, 축협장, 산림조합 장, 각급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체험행 사 참여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행사를 신청한 참여자들은 이날 김장을 펀하게 담글 수 있도록 준비한 무려 가져온 김치통에 담아가면 된다.

군은 가족 단위로 신청한 행사 참여 자들이 즐겁게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노래자랑 등 이벤트와 함께 수육을 곁 들여 막 담근 김치를 맛볼 수 있는 음 식 부스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절임배추와 양념을 주문한 사전 예약 주문을 받을 결과 총 111톤 (절임배추 81, 양념 30)에 6억2,000만



임실군표 이삭이삭 김장페스티벌 체험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실치즈테마 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이삭이삭 김장페스티벌.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큰 인기를 끌고

이 같은 기록은 지난해 5억1,300만원 의 실적을 훌쩍 넘은 수치이자, 2016 년 첫 개최 후 9년 만에 무려 14배 이 상 증가한 성과다.

실제 9년째를 맞은 임실 김장페스티 벌은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 판 속에 기존 고객에 더해 새로운 고 객들의 문의가 사전 예약 접수 기간 전부터 쏟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실군이 맛있는 절임배추와 고추를 재배하기에 알맞은 기후적 조건이 충 족되어 김장페스티벌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특히, 임실 신덕에서 자란 배추는 가 을철 밥과 낮의 기온 차가 커 배추가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

또한 HACCP 시설이 갖춰진 고추가

공공장에서 엄선한 임실 고추를 가공 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활용해 세계김 치연구소의 공인된 레시피로 양념을 생산해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절임배추의 우수성 에 더해 심 민 군수가 양념 재료와 맛 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수차례 강조하 기도 했다. 그 덕에 이번 김장양념은 예년보다 더 맛있고, 소비자들의 입맛 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임실군만의 '비법'이 더욱 가미됐다는 후문이다.

십 민 군수는 "임실군 신덕면에서 자란 우수한 배추와 최고를 자랑하는 임실 고추, 각종 채소, 재료들로 만들어 진 양념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맛있는 김치를 담그시길 바란다"며 "부족한 점 은 보완하면서 최고의 김장 김치를 고 객들이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어 군은 기본계획 수립의 진행 상 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 혀을 위한 목표 설정과 실행 방안에 대한 지역 이해관계자와 공무원 및 전 문가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과 지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임실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몰려온다

남원시, 전주대 등 이어 광주대와 자원봉사 업무협약

남원시가 한일장신대학교, 원광대학 교, 전주대학교에 이어 11월 20일에는 광주대학교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 서남대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지역에 대학이 사라지면 서 대학생 지원봉사 또한 침체될 수밖 에 없었으며, 여기에 더해 농촌이 고령 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봉사가 필요한 곳은 많지만, 지역 내에서 참여자를 구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며, 다행스럽 게도 대학들은 지역이 가진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줬고, 함께 참여하겠다고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앞으로 의료 봉사, 교육봉사, 문화공연, 체육봉사 등 대학 내 각 학과의 전공을 실린 재 능기부부터 농촌 일손돕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 칠 계획이다.

남원시 정남훈 시민소통실장은 "남 원을 찾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현 장에서 많은 배움과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대학생 들이 사회적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체 득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 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임실군이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군의 원, 직원, 민·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보고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은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임실 군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2025년부 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

고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용역사 관계자는 군의 기 본계획 수립에 관한 진행 상황과 2030 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이상 감축을 위한 7개 부문(에너 지 · 수송 · 건물 · 농축산 · 폐기물 · 흡 수원·정책기반) 40여 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보고했다.